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3일

오늘은 교직원 회의에 참석하여 선생님들 앞에서 교생으로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드렸다.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학생 상담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학생은 예술제를 준비하면서도 성적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예술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학생은 키가 작은 것이 입시나 오디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학생의 고민을 들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조건에 대한 불안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 번째 학생이었다.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며 나와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다. 아직 학생들과 어색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반가웠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라 저마다의 고민과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이름과 얼굴뿐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고민도 기억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